간다라서 서라벌까지 고대 불상 한 자리에

국박, 고대불교조각대전 11월 15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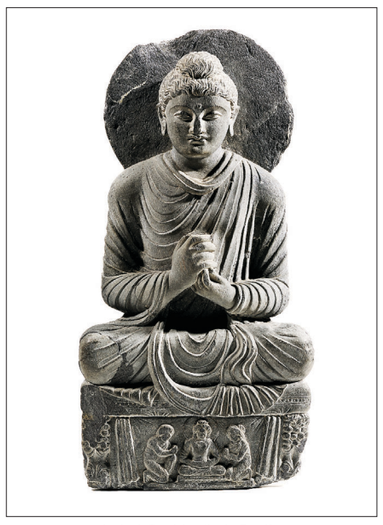
불상은 그 시대의 불교문화를 대변해 준다는 점에서 총체적 문화의 보고라 할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이 전 세계 8개국 26개 기관에 소장된 불상을 210여 건을 한 자리에 모은 전시를 연다.

용산 이전 10주년 기념해 국립중앙박물관이 고대불교조각대전 '불상, 간다라에서 서라벌까지'를 11월 15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인도, 중국, 베트남, 일본과의 교류 속에서 한국 불교조각의 전통을 조명하는 동시에 불교 확산의 과정을 살펴보고자 기획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인도에서 불상이 처음 등장한 시기부터 우리나라에서 반가사유상 제작이 정점에 이른 700년경까지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불교조각은 다양한 형식을 포함할 수 있지만, 이번 전시에서는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상 성격의 불상과 보살상을 위주로 했다"고 설명했다.

총 4부로 구성되는 전시는 불상의 창안 또는 전래에 대한 각 지역 사람들의 수용 태도에 집중하고, 점차 지역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에 따라 구성됐다. 1부 '인도의 불상-오랜 역사의 시작'은 인도에서 불상을 처음 제작한 목적과 방법에 초점을 맞추었다. 부처님의 유골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초기 불교에서는 400년이 넘도록 부처님을 인간의 형상으로 만들어 숭배하는 전통이 없었다.

설법하는 부처(간다라 쿠샨 시대)


국보 78호 반가사유상(6세기 후반)

반가사유상, 일본 삼존불 등 불상과 보살상 위주로 하는 국내외 유물 210여건 선봬

그러나 기원 전후가 되면 이러한 무불상(無佛像) 시대가 끝나게 되고, 간다라와 마투라 두 지역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불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두 지역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 아래에서 독자적으로 불상을 창안했기 때문에 불상 역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전시에서는 간다라와 마투라 출토 불상과 보살상, 이야기 부조를 통해 새로운 성상(聖像)에 대한 각 지역의 접근법과 관심사의 차이에 대해 알아본다.

2부 '중국의불상-시작부터 수대(隋代)'까지에서는 오호십육국(304~439)부터 수(581~618)로 이어지는 중국 불상 제작의 흐름을 보여준다. 후한 대에 불교와 함께 불상이 중국에 전래되었을 때 중국인들이 이 낯선 형태를 어떻게 자신들의 신상(神像)으로 소화하는가를 초기 금동불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쓰촨 성 청두 시 만불사 터와 산둥 성 칭저우 시 용흥사 터에서 발견된 일군의 불상을 통해 인도에서 전해진 불상의 기본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지역 문화에 맞게 양식을 변형하는 중국화 과정이 지역별, 왕조별로 특색 있게 진행되는 모습을 소개한다. 특별히 인도 굽타 시대 불상, 베트남 지역에서 발견된 불상과 동 시기 중국 불상의 비교를 통해 아시아 국가들이 교류를 바탕으로 새로운 양식의 영감을 얻는 모습을 보여주는 코너도 마련했다.

3부 '한국 삼국시대의 불상'에서는 외래의 상을 본떠 만든 최초의 상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국적 논란을 포함해 삼국시대 불상 제작 초기의 양상을 살펴본다. 또한, 삼국시대 불상이 중국 남·북조와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전개되다가 6세기부터 점진적으로 한국적인 모습으로 변화해 나가는 모습도 조명한다. 중국 불상과 한국 불상을 가까이에서 함께 보면서 양식적 흐름이 유사하게 진행되는 양상과 삼국시대 사람들이 취사선택한 부분을 보다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했다.

4부 반가사유상의 성립과 전개에서는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은 도상이자 가장 주목할 만한 종교적·예술적 성취를 이룬 반가사유상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반가사유상은 실존에 대해 사유하는 인물을 묘사하던 인도의 전통에서 출발했고, 중국, 한국, 일본에서 두루 제작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러 보살상 가운데 반가사유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유독 높아 반가사유의 도상을 중요하게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전시에서는 1965년 봉화 북지리에서 출토된 석조반가사유상이 선보인다. 추정높이 3.0m에 달하는 이 상은 한 사원의 주존으로 모실 만큼 반가사유상이 신앙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원 소장처인 경북대박물관을 떠나 선보이는 작품이라 의미가 크다. 또 2004년 이후 11년 만에 다시 국보 78, 83호 두 반가사유상도 나란히 선보인다. (02)2077-9284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범자문 막새기와를 이야기하다"

12월 22일까지 양주회암사지박물관서

양주회암사지박물관에서는 12월 6일까지 양주 회암사지에서 출토된 다양한 범자문 막새기와를 공개한다. 이번 전시는 회암사지에서 출토된 다양한 형태의 범자문 막새기와 유물을 한 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와 관심을 모은다.

왕실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명문기와 '효령대군선덕갑인(孝寧大君宣德甲寅)' 명 기와를 비롯해 회암사지 출토 유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범자문 막새기와 약 2,300여점 중 대표성을 띄는 35점을 이번 전시에서 관람할 수 있다.

또한 타 지역에서 출토된 범자문 막새기와와 함께 범자문이 도안된 청동거울, 향완까지 다양한 범자문의 활용성을 확인해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시는 관람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전시 입구부는 희망과 믿음의 발원문을 작성하고, '탑돌이' 의식을 모티브로 전시장 가운데 탑 형태의 조형물을 돌아볼 수 있게 구성했다. 그리고 전시 후반부에서는 범자의 구조와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체험 코너를 마련했고, 전시장을 나가면서 발원문을 통에 넣어 관람객 각자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기도해보는 기회도 제공한다.

효령대군 선덕갑인명 범자 문수막새

정혜숙 기자

2015 신라 소리축제 에밀레전

10월 8일~11일 경주 첨성대 잔디광장서

성덕대왕신종을 주제로 한 '2015 신라 소리축제 에밀레전'이 10월 8일~11일 경주 첨성대 잔디광장에서 진행된다.

올해로 4회를 맞는 '신라 소리축제 에밀레전'은 '에밀레 모형종 타종' '에밀레 주제관' '신라 문화체험 마당' '신라 간등회(看燈會)', '전통문화공연' 등으로 꾸며지는데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성덕대왕신종을 디지털로 복원해 눈길을 끈다.

'에밀레 주제관'은 30여 평의 기와집으로 조성되며 6개의 신라시대 범종 모형종 전시를 비롯해 성덕대왕신종 표면의 기록물인 명문 해석과 문양 설명 등을 전시한다. 또 성덕대왕신종의 특징과 과학성, 주조과정 등을 그림으로 쉽게 풀이해 소개한다.

'신라 간등회(看燈會)'는 한국 전통등의 효시인 신라시대 간등(看燈)을 재연하는 행사다. 대형 공작등과 용(龍)등, 황룡사 9층 모형탑등을 비롯한 50여 개의 대형 전통등이 첨성대와 함께 은은한 야경을 연출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디지털 성덕대왕신종'은 높이 4m, 최대 지름 2.5m 크기로, 신종의 '맥놀이 현상'을 화려한 LED 영상으로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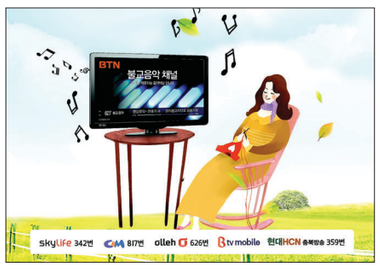
4톤 규모의 '에밀레 모형종 타종'은 에밀레전의 빼놓을 수 없는 체험이다. 범종을 타종하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지만 직접 타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이 코너는 매년 행사 때마다 가족단위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지난해 에밀레전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타종을 체험하고 있다.

BTN, 불교음악오디오 채널 운영 돌입

10월 5일부터 케이블TV 등에서 서비스



BTN 오디오 서비스 홍보 이미지

BTN이 본격적인 전문 오디오채널 운영에 들어간다. BTN(대표이사 구본일)과 BTN불교라디오(이하 BTN)가 10월 5일부터 케이블TV, 스카이라이프, IPTV 및 PC와 스마트폰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불교음악오디오 채널 운영을 시작한다.

오디오채널은 디지털방송에서 영상채널 다음에 배치된 채널로 오래된 TV 시청자들조차 모르는 이가 적지 않다. 오디오 채널에 포함된 불교음악채널도 마찬가지다. 불교오디오 채널은 TV 화면이긴 하지만 라디오처럼 소리로 불교관련 콘텐츠들을 듣는 채널이다. BTN은 "불교음악채널은 그동안 오디오전문채널 업체가 찬불가, 독경, 명상음악, 국악 등을 편성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불교음악음원확보의 어려움과 낮은 청취율, 운영인력의 전문성 부족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전한다.

불교음악오디오채널은 케이블TV와 같은 방송플랫폼사나 운영업체뿐 아니라 불자들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아 불교음악을 24시간 들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플랫폼인데도 불구하고 저변확대가 되지 못했다. 이에 반해 타종교음악오디오채널은 불교음악오디오채널에 비해 음원확보도 유리하며 청취율도 월등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BTN은 "불교음악의 활성화와 방송포교의 다양화 차원에서 10월 5일부터 기존 업체와의 업무제휴를 통해 채널 운영을 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불교계 다양한 음악과 독경, 명상말씀 등을 널리 알리는 토대를 불교음악채널을 통해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미 3개월 전부터 많은 준비를 해왔다. 지속적인 광고를 통해 이미 알려진 찬불가뿐만 아니라, 최신 다양한 장르로 발전된 다양한 찬불가와 불교 명상음악 음원을 확보하였고, 법보시 및 개인 소장용으로 제작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불교음반(찬불가, 염불, 독경, 명상말씀 등)의 음원을 수집했다. BTN은 "기존 음원시장에서 노출되는 불교음원이 많지가 않아 사전 홍보를 통한 음원수집 및 확보에 대해서도 기대를 많이 하지 않았었는데.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문의와 기증 및 음원 무상제공을 약속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그간의 과정을 전했다.

이밖에도 BTN불교라디오는 다양한 음원확보를 위해 풍경소리와의 협약을 완료하여 찬불가 및 찬불동요를 제공할 예정이며 최근 설립된 조계종 불교음악원과도 앞으로 협의를 할 예정이다. 또한 BTN은 순수 배포 및 홍보 목적으로 만들어진 숨겨진 불교음반을 소장하고 있는 스님과 불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다린다.

(02)3270-3338 정혜숙 기자

實戰四柱 강좌 안내

運命을 개척하는 實戰四柱
"나도 성공할 수 있다. 운명을 개척하자!"

송암 김서경

각고의 노력으로 드디어 實戰四柱 종합판을 출판하였습니다. 스님을 비롯하여 법사님 등 누구라도 쉽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파멸과 부귀영화는 나 자신의 행동여하에 따라서 발생합니다. 이 내용을 습득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며 장수하시고 무량공덕 쌓으시길 기원합니다.

◐제목 : 實戰四柱 강좌
◐개강 : 2015년 10월 2일(금요일)
◐강의일시 : 매주 월~화, 목~금 (10-12시, 15시-17시, 19시-21시) 하루 2시간 강의
◐강의과정 : 1년 과정 + 육효, 성명학 4개월
◐강의장소 : 명리학연구원 강의실
◐강의교재 : 實戰四柱 (교재비 무료)
◐수 강 료 : 월 20만원

명리학(命理學) 연구원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73-1
농협건물 4층 401호
전화 010-3341-4867
원장 송암 김서경

實戰四柱 책 판매 안내
(수강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별도 판매합니다)

이 실전사주책은 1,030페이지로 사주팔자가 구백육십개이며 용신과 대운과 세운, 질병, 성격, 팔자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이 책만 배우면 어떠한 사주라도 감정해 줄 수 있습니다. 명리학은 1년만 배우면 타인을 감정해 줄 수 있으며 육효도 필히 배워야 합니다. 사주와 대운은 큰 틀이며 매월의 운세와 승진, 합격, 재물, 매매, 송사, 문서, 생과 사, 택일, 일진, 모든 길흉사는 육효로 감정합니다. 육효는 4개월만 매우면 감정할 수 있습니다.

가격 | 85,000원
(입금 확인 후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제1기〉FCA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출범

동양역학, 대한민국 역학계 명문파 장문, 최고실력자, 최고 권위의 교수님들과 함께 하는 아주 특별한 '서울벤처대학원 FCA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졸업 후에도 멘토와 멘티로서, 혹은 동반자로서 교수님들과 과정생들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이 시대 동양 미래예측학계를 이끌어 갈수 있는 이 시대 최고의 역학 전문가, 동양 미래예측 전문가 양성과정

교수진 : 미래예측학박사 1호 소재학교수, 백운산 한국역술인협회장, 학선 유래웅 고려기문학회장, 박영창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동양학부장, 경기대 백민교수, 한양대 정창근교수, 백운암 노성순교수, 박청화 청화학술원장, 최명우 현공풍수지리연구소장 , 창광 김성태원장, 노승우교수, 조규문교수, 청주대 이상광교수, 국제뇌교육대학원 박성희교수, 공주대 이수동교수, 글로벌사이버대 문봉 박재범교수, 서경대 김인순교수, 충청대 남정 권오연교수 외

■대 상 : 역학자, 명리학 중급자, 현업 종사자, 역학, 명리, 풍수, 관상 교수 및 강사 (학력무관)
■일 정 : 1학기 과정(15주), 10월 19일부터 매주 월(月) 18:40 ~ 21:30
■수강료 : 185만원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201-275629 (예금주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특 전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총장명의 수료증
수료 후 동문활동 및 수료 후 과정, 학술활동 등 교수진과 동문간 지속적 관계유지
■자격증 : 동양미래진로적성 상담사 / 현대명리교육상담사 / 명리진로적성 상담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가 문화관광부 등록)

선정릉역 2번 출구 (지하철 9호선 / 분당선)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문의 02-3443-4984 www.gfca.kr